광주시의회, 민주당 '감투 싸움'에 끝나지 않는 잡음

예결위원장 선임 불발·특별 위원 교체 등 독점 폐해 드러나
'반쪽짜리 출발' 오명·의장단 리더십 부재·갈등 해소 과제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감투싸움' 속에 일단락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결산특별 위원을 의원총회를 통해 독단적으로 바꾸는 등 본회의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의장단의 리더십 부족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 간 갈등으로 예결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후반기 광주시의회는 이번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의원들 간 갈등 해소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의원들 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데 후반기 의장단이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지도 주목된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 구성을 마쳤다.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는 정다은 의원이 선출됐다. 단독 입후보한 정 의원은 찬성 17표(무효 4표·기권 2표)를 얻었다.

하지만 선출이 아닌 호선 방식인 예결위원장은 선임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3명이 내부적으로 후반기 예결위원장 후보로 나섰지만 이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열어 예결위원장 후보를 한 명으로 좁히는 과정에서도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통과된 예결위원 명단을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바꾸는 등 일당 독점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당초 김나윤·조석호 의원이 교육문화위원회 몫의 예결위원으로 정해졌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같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인 홍기월 의원을 대신 예결위원에 넣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김나윤·조석호 의원 중 예결위원을 중도사퇴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려고 이미 본회의에서 표결된 예결위원 명단마저 뒤늦게 손보는 꼼수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결위원장 선임은 오는 8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사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사보임 절차'를 밟아 예결위원을 교체한 후 호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3명의 시의원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후반기 첫 회기에서 감투싸움을 보인 만큼 일당 독점 체제의 폐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의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은 "21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결위원 9명이 선출해야 하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의회를 무시한 채 나눠 먹기 중"이라며 "일당 독재의 폐해로 의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의장단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원 간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할 의장단이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민주당 자체적으로 상임위원장단 후보를 정리했음에도 선거에서 대거 이탈 표가 나온 것은 의장단의 정치적 포용력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내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결정 사항을 뒤엎은 것은 의회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의 독단과 예결위원장 문제로 인해 함께 출발해야 할 광주시의회가 완전체로 나아가지 못한 채 다음 회기까지 한 달을 더 기다리게 됐다"며 "광주에서의 민주당이 아무리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더라도 본회의 결정 사항까지 뒤집어 버리는 것은 지방의회를 삼류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21일 오전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를 찾아 김진열 군위군수, 대구시 관계자 등과 조감도를 보며 건립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 TK 신공항 건립지 방문… '달빛 벤치마킹'

강기정 광주시장이 성공적인 민·군 통합공항 이전 벤치마킹을 위해 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조성 중인 대구시 군위군을 방문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군위군청에서 김진열 군위군수를 만나 최종 이전지 선정과 추진 현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주민 설득 과정, 이전지인 군위·의성 공동 합의 과정, 주민 지원책, 접근 교통망 등을 상세히 논의하고 성공적인 민·군 통합 공항 이전에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 시장과 김 군수는 공항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 부지 모형 조감도를 통해 활주로, 소음 완충 지역 등 시설 배치 계획을 살펴봤다.

광주시는 이달 중 전남도·무안군과 함께 '3자 회동'을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군 통합공항 추진을 위해 소음 대책 토론회, 무안군 방문 설명회, 농촌 일손 돕기, 무안군 전체 세대에 '약속의 편지' 발송 등 무안군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기부 대 양여'에 의한 차액 4508억원에, 광주시 재원을 추가해 1조원(4508억원+@)의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광주·전남·무안의 지역 소멸을 막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하다"며 "꾸준한 신뢰와 소통으로 마음을 열고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대응 총력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등

전남도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상황 전파, 선제적 주민 대피, 피해복구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영암군 금정면 모정마을을 찾아 산사태 주민 대피시설을 살피고 재난안심꾸러미 등을 소개하면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모정마을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난 5월 10일 경찰·소방·면사무소·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김 지사 등은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과 대피소 관리 상태, 주민 대피 준비상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재난안심꾸러미는 전남도가 산불·산사태·홍수 발생 시 선제적 주민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치약·칫솔세트, 물티슈, 즉석밥, 컵라면, 다과류 등 15종이 담겼다.

전남도는 16일부터 집중 호우로 많은 비가 내린 순천, 진도 등 9개 시·군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한 지역민들을 위해 '재난안심 꾸러미' 200세트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올해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계곡부 정비를 위한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앞두고 있어 올 11월 사업이 완료되면 항구적 산사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형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과 동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 대상·시기 등을 결정하고 일몰 전 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시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기대응 시스템 구축…산불 감시 빨라진다

전남도, 한전과 스마트 산불관리 대응 협약…감시카메라 설치 등

송전 철탑과 기지국에 산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 산불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순천 동부청사에서 한전 광주전남본부와 '스마트산불관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산불 감시 영상정보 상호 공유 ▲산불 조기대응 시스템 구축 협력사업 ▲산불 특별대책 기간 이전 시스템 합동 점검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산불 조기대응 시스템이 구축되면 송전철탑과 기지국 등에 설치된 산불 감시카메라로 실시간 산불 감시가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송전철탑에 산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한전은 전력 기반(인프라)과 인공지능(AI) 서비스 산불 분석 플랫폼을 제공한다.

한전에서 개발·운영 중인 '산불조기대응시스템'은 '2023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불을 조기 탐지하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는 2025년부터 4개소에 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산불 감시 카메라 설치 시 송전철탑 등 한전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전의 산불 조기대응 시스템과 전남도의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이 연계되면 산불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11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김지을 기자 dok2000@